

관계적 측면에서의 치유매체를 통한 치유전략

연구자 및 소속: 건양대 치유선교학과 박사과정 이상순

들어가며

종교(religion)와 관계(relation)는 그 어원이 같다고 한다. 그래서 “관계가 없으면 종교도 없다.(No relation No religion)” 말이 생겼다. 종교는 곧 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와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 자신의 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김형태, 2014:58).”

인간(人間)은 관계적 존재이다. 인간(人間)이라는 단어는 사람 인(人)과 사이 간(間)으로 구성되었다. 사람사이 라는 뜻이며, 사람사이는 곧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육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이해하고 치유하는데 있어 각종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육체를 관계적으로 보지 않고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단순 존재로서만 이해한다면 인간의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영혼육의 기능상 세 구분이 있으면서도 이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적 존재’로서의 ‘전인’(Whole Being)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전인으로서의 인간이해는 그 자신의 내면적 관계성에서 영혼육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자연과의 상호관계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 관계성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체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영혼육간의 상호 관계와 영혼육과 하나님과의 상호관계에 있고 그 관계성 조화로운가의 여부를 살피고 돌보는 것은 인간의 질병과 건강을 전인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글은 그러한 상호관계 속에서의 성령의 열매인 절제와 신앙의 필수 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이 건강유지 및 치유매체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간의 상호관계 중 음식과 육체 및 정신의 관계, 믿음과 말씀이 육체에 미치는 관계, 오감과 육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관계적인 측면에서 질병과 건강에 대한 이해

1. 관계적 측면에서의 질병의 정의

관계라는 것은 혼자서는 가능하지 않다. 내가 있으면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나와 상대방의 상호간에는 서로 간에 관계를 유지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 무엇이 잘 지켜질 때에는 그 관계가 건강할 것이고 잘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건강을 잃어 질병상태가 될 것이다.

웹스터 사전에서 질병에 대한 정의가 “질병이란 평온함이 결여된 상태, 또는 건강의 질서가 어긋남을 경험하는 상태이다.”를 보면 평온함이나 질서가 어긋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질병은 육체, 마음, 영과 같은 인간의 구성요소간의 무질서 또는 부조화, 그 구성요소들 간의 균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내의 무질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질서의 정상적 형태로 부터의 이탈을 나타낸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질병이란 자신, 사람들, 환경,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한다. (이명수,1993:14)

로 정의하듯 질병은 무질서나 정상적 상태에서의 이탈 상태로 본다. 상호관계성의 훼손 혹은 질병(disease)이 조화(ease)롭지 못한 반대상태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볼 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의 성경말씀처럼 죄가 장성하는 것이 질병이고 질병의 원인이 욕심이라고 볼 때 욕심이 정상적 상태에서의 이탈 상태인 무질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적 건강은 하나님과 화해

를 이루어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2. 인간의 질병 구분

이명수 박사(1994:14)에 의하면 인간의 질병을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1. 육체적 질병
2. 정신적 질병
3. 정신-신체적 질병
4. 영적 질병
5. 영적-정신적 질병
6. 영적-정신적-신체적 질병
7. 사회적 질병

그러나 순수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질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처음 시작과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정도와 범위와 다소 서로 연관되어 있다.

병의 발생이나 진행에 있어 한 가지 요인만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고 적은 여러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병은 발생하고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관계적인 질병인

1. 정신-신체적인 질병에서 먹음과 말함, 들음에서의 치유매체로서의 절제
2. 영적-정신적-신체적 질병에서 치유매체로서의 믿음과 사랑과 말씀과

관련하여 여러 임상보고 내용들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 중 몇 가지 치유매체인 절제, 사랑, 믿음, 화평, 말씀, 기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3. 오감(五感)과 육체와이 관계 치유사례

영혼과 정신과 육체는 서로 떼어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육체관리를 잘할 수 있고 건강한 육체가 있을 때 건강한 정신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육체의 감각인 오감(五感)은 보고 듣고 말하고 접촉하고 맡는 감각이다. 성경은 육체의 오감(五感)기능과 관련한 치유사례를 풍부히 소개하고 있다. 성경에서 오감을 자극하여 치유한 사례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1 (성서의 오감을 자극하여 치유한 사례(대한 성서공회))

기 관	키워드(단어)	영 어	치유횟수	829회 %
1. 시각(視覺)	보라, 보다	see, sight, look,	509	61.36%
2. 청각(聽覺)	들으라, 듣다	hear, hearing	102	12.30%
3. 미각(味覺)	맛	taste, palate	137	16.52%
4. 후각(嗅覺)	냄새	smell	37	4.46%
5. 촉각(觸覺)	안수(만지다)	touch, tactile	44	5.30%

또한 성경에서 치료, 치유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단어의 수를 집계한 것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2 (성서에서 치료, 치유개념 단어 횟수)

구 분	구 약	신 약	합 계
1. 영적인 영역	11회	6회	17회
2. 혼(정신)적인 영역	13회	15회	28회
3. 육체적 영역	21회	17회	38회
4. 사회(국가)영역	9회	1회	20회
5. 총체적 영역	11회	6회	17회

이것을 보면 성경은 인간의 오감을 다양하게 자극하여 치유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육에서 총체적으로 치유에 대한 내용을 풍성하게 담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치유매체

1. 절제

나와 음식의 관계에서 절제하여 먹음은 정신적 신체적 관계에 있어서의 치유매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절제함도 치유매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절제를 음식의 종류를 구분하는 절제와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절제로 보기로 하자.

(1) 음식의 종류를 구분하는 절제

먼저 육체적 감각 중 미각, 즉 먹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음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창1:29)”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절제하면 장수한다. 실제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는 식생활을 하는 곳은 모두 장수한다. 미국 상원 영양문제 특별위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씨 맺는 모든 채소가 지구촌 장수마을의 주식이라고 소개하면서 영양학적으로 설명한다.

세계 장수촌임을 자랑하는 훈자 지방, 남미의 비르카맘바, 코카사스의 구르지아 공화국 등에서는 모두 여러 가지 곡물을 섞어 먹는다. 완전 곡류에는 비타민 E를 비롯해서 비타민 B 군의 여러 가지 비타민이 들어있다. 그리고 셀레늄,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크롬, 아연 등 미네랄이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정제된 곡물에는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유질이 풍부하다. 재래의 낫은 영양학에서는 섬유질의 가치를 별것 아닌 것으로 무시했지만, 진보된 새로운 영양학에서는 섬유질을 중요시하는데 곡물의 외피야말로 섬유질이 풍부한 부분이다. 섬유질 정도는 야채나 과일도 보충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19세기 말부터의 식품중의 섬유질의 변화 및 영국인의 섬유질 섭취량의 변화 등 건강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분석 평가한 영국 학자들의 연구조사는 곡물에서의 섬유질 부족이 현대적 식생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섬유질은 발암물질을 비롯해서 중금속,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담즙산등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설하는 성질이 있다. 칼슘은 중금속이 뼈 조직에 집착되는 것을 억제하며, 셀레늄과 비타민E는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을 무해한 것으로 만들어 몸 밖으로 쫓아 보내는 효소의 원료가 되거나 반응의 촉매제가 된다. (미국상원영양문제 특별위원회, 원태진 편역(1990:161-163)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서울: 형성사)

하나님 명하시는 씨 맺는 채소가 영양학적으로 얼마나 인간에게 유익한가를 영양학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명하신은 간단하신데 그 속에 담긴 과학적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이 명하신 식생활대로 살지 않게 되었다. 인간의 편의와 상업적 목적으로 -육식- 음식물을 가공하여 오래 보관할 수 있거나 보기 좋고 달콤하게 먹음직하게 만들었다.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워서 당장 먹기 편한 음식들은 먹는 인간의 건강을 고려한 것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음식들은 마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3:6)”라고 기록된 것처럼 선악과나무의 모양처럼 당장 먹기는 편하나 선악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것처럼 그런 음식들은 아래 내용을 보듯이 범죄율과 상관성이 많다는 것이다.

동서양학자들이 인스턴트식품,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범죄율이 높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교내 폭력으로 소년원에 수용된 아이들을 만나 소년원에 들어가기 전에 대략 어떤 식사를 했는지 물어보면 아침, 점심, 저녁, 간식에 대해 조사해 보면 탄산음료를 아주 많이 마신 것을 알 수 있다. 인스턴트라면, 과자, 캐러멜 등을 많이 먹었고 식사에 야채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년원의 100명 전원에 조사해 본 결과 청량음료를 가장 많이 마신 아이의 경우 무려 5리터를 마셨다. 그들의 모발조사에서 알루미늄이 많이 나왔고 납, 카드뮴이 그 다음으로 많이 검출되었다. 영양소인 칼륨, 마그네슘은 적었다. 몸에 필요한 영양 미네랄은 적고 몸에 해로운 중금속은 많은 것이다. 탄산음료에는 비타민이 없어 당분이 에너지로 변하지 못하므로 몸 안의 비타민을 자꾸 쓰게 된다. 그래서 비타민 부족이 되기 쉽고 칼륨도 소모하니 몸 안의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탄산음료 안의 고당분이 순간적으로 혈당을 올리지만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갑자기 끌어내리게 된다. 그러면 혈중에 오히려 당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혈당 상태가 되어 뇌의 조절기능을 잃게 된다. 신경질이 자주 나면서 공부도 안 되고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불쑥 화가 나기도 한다. 뇌의 에너지원은 포도당뿐이어서 뇌는 포도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상태가 되면 몸은 혈당을 올리기 위해 부신피질에서 아드레날린을 많이 방출하는데 이 호르몬은 공격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으로 심장을 활발하게 한다. 화가 나게 하는 생리학적 요인이 된다. (박정훈(2002:92), 『잘먹고 잘사는 법』, 서울: 김영사)

음식의 종류를 구분하여 절제하여 먹지 않고 내키는 대로 탄산음료를 마시면 몸 안의 영양분-비타민, 미네랄 등을 잃어버리게 할 뿐 아니라 체내 당의 수치가 인체리듬에 맞지 않게 오르내리면서 뇌의 조절기능에도 장애가 온다는 것이다. 인스턴트 음료는 인체 정상적인 리듬을 잃어버리게 함으로 인체 육체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건강은 물론 뇌의 기질 변화와 정상적인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정적인 정도는 경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감성조절 불능상태에 까지 이르는 심한 경우도 있다.

10년 전 일본에서 중학교 2학년생이 집에서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를 잔혹하게 죽인 사건이 있었다. 이 아이의 정신감정을 했더니 중증의 뇌 위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의 방에는 캔 강통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아들에게 살해당했다고 한다. 할머니가 귀여운 손자를 위해 항상 냉장고에 탄산음료를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다. 탄산음료를 많이 마셨다면 저혈당이 반복되어 뇌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절제하지 않고 무작정 제공한 안타까운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식 식단은 뇌의 학습기능 중 지각기능과도 상관성이 있어 정상적인 영양공급은 공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철분은 지각능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계산능력, 수학적 사고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필수 미네랄이다. 1979년 미국 뉴욕에서 대규모로 영양학적 연구가 진행되어 803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아침식사와 점심식사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공급하고 콜라나 사이다 같은 설탕이 많은 탄산음료를 가급적 먹지 않게 하여 4년 후 실험에 참가한 학교전체의 전국 석차가 평균 10%나 상승한 것이다.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결과였다. (박정훈(2002:105), 『잘먹고 잘사는

법』, 서울: 김영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절제하지 않고 인간이 가공하여 만든 식물을 취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육체는 물론 인간의 지적 능력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행함은 옛 사람들의 지혜를 의학처방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불임을 정자의 약함으로 보고 자연의 식물 중에서 생명력을 가진 씨앗을 섭취함으로 그 힘을 보충하는 것이다.

동양의학의 고전인 『의학입문』이라는 옛 의서를 보면 불임중에 오자연종환이라는 처방을 사용했던 기록이 있다. 구기자나무의 열매인 구기자, 새삼의 씨앗인 토삼자, 딸기나무의 미성숙한 과실인 복분자, 질경이의 종자인 차전자, 오미나 나무의 성숙한 과실인 오미자,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씨와 열매로만 구성된 처방인데 특히 남자의 정충이 부족하여 불임이 되는 경우에 응용되었던 것이다. 각종 씨앗이나 열매 속에는 종족을 보존하려는 생명력이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갖가지 씨앗 속에는 인체의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있으며 정충의 수를 늘이거나 난소세포의 조직을 활성화 시켜주는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이상룡(1997:53), 『성경과 한방이야기』, 서울: 국민일보)

(2)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절제

다음으로 음식을 취함에 있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먹음이 동물의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자.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의 실험에서 정도를 넘지 않고 먹는 양을 절제하여 취할 때 쥐의 수명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쥐의 경우 식사량을 절제하는 소식을 시키면 배부르게 먹은 경우보다 훨씬 오래 살고 병에도 잘 안 걸린다고 하는 실험보고가 있다.

전 캘리포니아 대학 병리학 교수 로이 L. 윌 포오드 씨의 연구에서 쥐에게 태어난 직후부터 엄격한 소식을 시켰거나 어릴 때부터 또는 성장해서 소식을 시켜도 같은 연명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험은 생후 1개월된 수놈의 쥐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제 1그룹은 생후 10개월까지는 실험동물용 사료를 배부르도록 자유롭게 먹이고, 그 이후 정제 사료-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의 비율을 좀 높이고 있는 것- 또한 자유로이 먹였다.

제 2그룹은 처음부터 정제 사료를 주었는데 칼로리 섭취를 제 1그룹의 60%로 제한하였다.

표3

그룹	수명(개월)
1	27.2
2	30.1
3	32.8
4	30.7

제 3그룹은 생후 5개월까지는 제 1그룹과 같이 사료를 주고, 그 이후는 제 2그룹과 같이 칼로리 섭취를 60%로 제한하였다.

제 4그룹은 생후 10개월까지는 제 1그룹과 같이 사료를 주고 그 이후 제 2그룹과 같이 칼로리 섭취를 60%로 제한하였다. 이상의 4그룹에 대하여 그 평균 수명을 조사해본 결과는 좌측과 같다. 칼로리를 제한한 마우스의 평균수명이 만복의 쥐보다 장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60%의 소식을 어릴 때부터 아니면 성장기, 성숙기가 되어서 시작해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반복의 쥐의 무리가 사망한 원인을 조사해보니 비만 때문에 아니라 대다수가 암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甲田光雄, 김홍국역(1993:43-43), 『소식에찬』, 서울: 늘푸른들)

식욕을 절제함이 없이 배부르게 먹은 쥐의 수명이 27.2개월로 가장 짧았다. 그것은 절제하지 않고 양껏 먹음으로 인하여 비만을 부르고 비만은 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병의 원인이 되어 수명을 단축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적절한 양의 음식섭취는 동물의 수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절제된 음식 습관은 인체 내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력을 더 강하게 함을 아래의 쥐 실험을 결과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일본에서 1998년에 오사카 부립대학 농학부 나가노 요시히사(中野長久)교수 등이 쥐를 이용해 실험한 뒤 ‘소식’이 암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나가노 교수팀은 쥐 150마리를 50마리씩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 사육했다.

1) 그룹) 식사를 제한하지 않음 2) 그룹) 식사를 80%로 제한 3) 그룹) 식사를 60%로 제한

5주째에 모든 쥐의 복부에 암세포를 주입한 두 매주 암 진행 상태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1) 2) 그룹은 암세포 주입 후 2-3주 동안 복부에 평균 11g의 종양이 생겼으며, 4주째에는 대부분의 쥐가 죽었다. 3) 그룹의 쥐들은 암세포 주입 후 2-3주 동안 종양 크기는 평균 7g으로 1) 2) 그룹의 2/3 쯤으로 작았으며 대부분의 쥐가 7주째까지 생존했다. 또 이 쥐들은 1)의 포식 그룹에 비해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페론 양이 배나 되었으며 면역세포인 T세포(림프구의 일종)의 양도 배 정도 많았다.(이시하라 유미, 황미숙역(2009:52-53), 『하루 세기가 내 몸을 망친다』, 경기: 살림)

인간의 몸은 과식과 소식 어느 쪽에 강한가 하면 소식 쪽에 더 강하다. 말을 바꾸면 사람은 굶는데 더 강하다는 것이다. 좀 굶더라도 몸은 어떻게든 잘 견디어 준다.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아이들이 픽픽 굶어죽는 기아지대에서도 인구가 줄기는커녕 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무엇보다도 대변해주고 있다. 하지만 과식 쪽에는 의외로 허약한 데가 있다.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가 최초로 경험한 것은 포식이 아니라 기아 상태 쪽이었다. 오랫동안 굶는 상태가 이어지고 그 사이에 몸의 구조는 거기에 맞게 이루어졌다. 그 때문에 인체는 혈당치가 낮을 때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는 구조가 여러 가지 생겼지만 식량이 남아돌아서 혈당치가 오른 경우의 대응책은 실통치 않다. 혈당치를 올리는 기능은 아드레날린, 갑상선, 자극 호르몬, 티록신, 성장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등이 많이 있는데 혈당치를 내리는 것은 거의 인슐린에 의지하고 있다. (일부 티록신이 가능하다.) 그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그만 손 들고 만다. 이것을 보더라도 사람의 몸의 과식에는 기본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찌 히로토모, 삶과 꿈역(1992:57-58), 『미식소식이 오래 산다』, 서울: 삶과 꿈)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육체는 절제하며 부족한 듯 먹을 때 가장 강한 면역력을 가지며 암(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암(癌)의 글자를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암(癌)의 한자를 보면 병들어 기뻐(疒)에 입(口)자가 3개가 들어있다. 많이 먹는 것과 상관없다는 것이다. 음식을 취함에 있어 절제하여 먹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때로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절제인 단식을 하기도 하는데 단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인 스스로 조절기능을 극대화 하여 난치병을 치료하기도 한다.

사람이 아닌 닭의 경우에 단식을 시켜 생명력을 강화시킨 사례가 있다. 닭을 일주일간을 단식시켜 산란 개월을 연장하고 산란율도 올리고 전염병도 예방하였다.

광주 봉선동에 있는 한 양계장에서 닭 단식을 시킨 일이 있었다. 한때 그 양계장에 있는 모든 닭이 유행병을 앓았으나 격리시켜 단식을 시킨 닭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닭은 2년간 산란을 하게 되면 폐계로 도태된다. 또 가을철이 되어 털갈이를 하게 되면 산란율이 60%로 떨어진다. 게다가 가을에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닭이 죽게 되어 큰 손실을 가져왔다. 나는 닭의 산란율을 촉진시키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생수 단식을 일주일간 시켜보라고 권하였다. 일주일간 단식을 한 후 모든 닭이 일제히 털갈이를 했고, 한 달이 지난 후 산란율은 80%로 뛰어올랐다. 또 산란 개월 수도 6개월 이상 연장되었으며 건강한 닭으로 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료도 절감되었다. 단식하는 중 1-2%만 도태될 뿐이었다. (장두석(1995:10), 『사람을 살리는 단식』, 서울:정신세계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체는 자체조절기능을 가진 유기적 시스템이다. 인체는 내부적 상황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강력한 경고를 발한다. 다만 말이 없을 뿐 증상으로 표시한다. 현대 성인병의 70%가 잘 먹어서 생기는 식원병(食原病)임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먹어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식욕부진이라면 무조건 보약이나 보신식품을 과량으로 상요하고 있음을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식욕이 전혀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비상상태에서 음식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음식을 소화흡수하기 위해 위장관계로 보낼 혈액을 위급한 다른 곳에 보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함으로 신체를 정상화 하겠다는 의사 표시인 것이다. 히포크라테스나 갈렌 등 저명한 의사들이 질병치료를 위해 단식처방을 했다. 인체는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각종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된다. 이런 정상화 과정에서 인체의 저항력은 강화되고 자연치유력은 극대화된다. 오랜 세월을 걸쳐 축적되어 온 노폐물은 배출되고 잉여물질은 에너지의 공급을 위해 처리된다. 특히 위장관과 혈관 등에 있던 불순물이 제거되므로 소화기 및 순환기 질환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으며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황성주(1992:100-102), 『성서건강학』, 서울: 국민일보사)

이렇듯 단식을 하면 우리 몸의 병적 조직인 종양, 암, 부종 등 원래의 건강체에는 없던 병적 조직의 단백질을 이용하게 되는 것을 ‘자가 용해’라고 한다. 그러면서 갖가지 병이 없어지는데 치료를 받아보면 이상하게도 단식 중에는 정상적인 조직의 용해, 즉 분해가 없다는 것이다. (이길상(1994:248), 『건강하게 사는 지혜』, 서울:기독교문사)

그래서 단식을 일컬어 ‘칼을 사용하지 않는 외과 수술’ 이라고도 표현한다. 단식 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인체내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조직을 태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내 정상 조직은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심하고 단식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기묘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음식이 인체에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수명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으로는 영양 상태에 따라 지각능력이나 절제력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적절하게 절제하여 먹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치유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절제는 주요 치유매체 중의 하나이다.

(3) 절제하여 말함도 정신적 신체적 관계에 있어서의 치유매체가 될 수 있다

입은 음식을 먹는 기능 뿐 아니라 말하는 기능도 있다. 먹는 기능이 육체적 기능이라 한다면 말하는 기능은 정신적 영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입은 마음의 마이크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도 마음과 혀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어떤 이들은 말이 마음의 알갱이라고도 한다. 마음의 알갱이가 모여 말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은 마음의 표현이며 마음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다.

에머슨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간다.” 고 하였다. 생각은 말로 이어지고 말은 행동으로 이어져 말과 행동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원천이 생각을 관찰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그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잠언4:23)”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마15:18-9)”

인간의 몸은 먹는 것에 의해서 뿐 아니라 말하는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한다. “사람은 제 입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 제 입술이 내는 소출로 배부르게 된다. 혀에 죽음과 삶이 달려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잠 18:20-21)”

인간의 하는 말은 그 말을 하는 당사자는 물론 그 인간과 관계하는 물은 물론 살아있는 생물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곰팡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일본어, 영어, 독일어 등 몇 가지 언어로 물에게 보여주고 결정 사진을 찍으면, 어느

나라말이건 잘 정돈된 깨끗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한편, ‘망할 놈’ 등 사람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이건 제멋대로 결정이 부서져 보기에도 처참합니다. 결정에 균형이 잡힌 육각형이 나타나는 것은 그 물이 대자연의 생명현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대자연의 섭리를 잊고 제멋대로 만들어낸 것이나, 오염된 것에 대해서는 물은 결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랑, 감사’라는 말은 대자연의 율법, 생명 현상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자연 그 자체의 육각형 형태를 반듯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망할 놈’이라는 맑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부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말, 상처 입히는 말, 조롱하는 말 따위는 인간이 문명을 건설하면서 비로소 생겨난 말입니다. (에모토 마사루, 양역관역(2006:76-77)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경기: 나무심는 사람)

일본의 연구가 에모토 마사루는 말 한마디의 효력을 ‘밥’을 가지고 실험하였다. 그는 밥을 똑같이 두 유리병 속에 넣고 하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써 붙이고 다른 하나는 ‘망할 자식’이라는 글을 써 붙였다고 한다. 그런 다음에 날마다 두 초등학생에게 그 글귀를 각각 병에 대고 읽게 하였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밥은 발효되어 향기로운 누룩냄새가 나고 있었고 ‘망할 자식’이라는 말을 들은 밥은 형편없이 부패해 검은 색으로 변화였고, 악취를 풍기고 있었던 것이다. (차동엽(2007:204-205) 『무지개원리』, 서울, 위즈엔비즈)

인간 마음의 표현인 말을 물이 듣고, 곰팡이가 듣고 생물체가 듣는다는 것이다. 인간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말을 하면 육각형으로 변하고 원리에 맞지 않는 마음을 품고 말하면 냄새가 나거나 결정이 부서진다는 것이다. 상호간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서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4) 절제된 하나님의 말씀도 정신적 신체적 관계에 있어서의 치유매체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듯 물과 생물체를 회복시켜준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신 말씀은 더욱 그 영향력이 클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이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곳이 성경이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말씀은(딤후3:16)은 당연히 인간의 질병상태인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의 치유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제외하고는 그 대상이 되는 질병이 대부분이 당시의 과학적 의술로서는 만성적이며 치료 불가능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기적적인 것이었다.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인 귀신을 쫓아냄, 말씀으로 명함, 안수, 기도, 환자나 그 친척의 기도 등의 것이었다. (이명수(1993:32-33), 『치유선교론』, 서울: 나임)

그 중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말씀 한 마디로 살리실 정도로(요11:43) 말씀은 놀라운 치유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여도 치유효과가 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음식을 취하여 소화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폴 투르니에 박사는 노이로제나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하루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시편 23편 묵상」이라는 유명한 처방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의 하워드 캘리 박사도 『성경은 나에게 동료의사의 역할을 해준다. 성경말씀은 매우 훌륭한 의술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의 처방대로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치료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절실한 고백을 하였다. 시편 23편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질환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을 치료하는 비상한 능력 발휘의 이유는 무엇일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공감대의 형성이라고 할까. 동병상련이라고 할까, 이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의 치유력은 인간정서의 보편성에 호소하면서도 절대 신앙을 통한 극한적 상황과 위기의 극복이라는 깊은 체험에서 우러나온다고 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좋다. 직장에서도 좋고 가정에서도 좋다. 근무시간에도 좋고 여행 중에도 좋다. 화장실에서도 만원버스에서도 좋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건강한 삶을 누리자. 아침 경건의 시간에 한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시편 23편만을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온갖 정신공해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여 정신건강을 위한 최고의 명약인 시편 23편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정신적 자유를 누리자. (황성주 (1992:143-144), 『성서건강학』, 서울: 국민일보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인체 내의 유전자가 정상적인 체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생체 내에서는 갖가지 원인으로 우리 본연의 형질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변형 유전자가 생기는데 그 변형된 유전자를 고치는 DNA 복구유전자 (DNA repairing genes)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우리 몸에 암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 때마다 이 유전자가 변형된 유전자를 원위치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몇 단계에 걸친 면역방어체계가 작동하고 있어서 나쁜 균이나 독의 체내 침입과 공격을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복구 재생시키는 유전자도 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면역방어체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다 같이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방어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의 가장 놀라운 발견은 DNA 복구 유전자와 면역 방어체계가 우리 마음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찾아낸 것입니다. 내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고 내육신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뻐할 때 내 육체에 DNA 복구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면역방어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럴 때 어떤 더러운 것도 내안에 들어 오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실령 내안에 잘못된 변형유전자가 암종을 만들어 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DNA 복구 유전자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손기철(2010:104-105) 『치유기도』, 서울: 규장)

2. 믿음

믿음은 영적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있어서의 치유매체가 될 수 있다

믿음은 인간의 각종 상호관계에 있어 매우 소중한 덕목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11:1)” 라고 기록된 것처럼 믿음은 원하는 것의 실재인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글을 보자.

실험자가 미립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결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observer effect)’ 라고 부른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다시 말해 미립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립자들은 불가사의하게도 거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가 끌어당겨 자주 바라보는 이미지가 내 몸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타키스 교수는 “우리는 자주 바라보는 이미지대로 변화해간다.”라고 하였다. 그는 32년간 12,000명을 추적하였다. 친한 친구가 똥똥하면 나도 똥똥해질 가능성이 무려 3배나 높아졌다. 똥똥한 친구가 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사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지구 정반대 편인 브라질에 살든, 태양계의 저 끝 토성에 올라가 살든 내가 그 친구 모습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자주 떠올려 바라볼수록 나도 모르게 점점 몸이 똥똥해진다. 미립자는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김상운(2011:39-43) 『왓칭』, 서울: 정신세계사)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관계를 지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킨다. 사람과 사람사이 관계를 정신적인 측면으로 보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영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믿음은 정신적이면서도 영적인 치유요소라 볼 수 있다. 의학 용어 중 플라시보 효과¹⁾가 있다.

플라시보 효과란 의사가 조제해서 준 ‘약’에는 특정한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약을 복용한 때에는 거기에 약으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이야기들은 대로의 치료효과가 나타나다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진짜 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병자이든가 항상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나 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적절한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등에 환자가 의사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식의 기분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 대용약을 환자에게 주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대용약을 주었다고는 밝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제공된 대용약이 대개의 경우 증상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데에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것도 특히 불치병이라고 지칭되는 병 등에 있어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대용약을 이용한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효과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믿으며 또 그 성과를 기대하는 환자의 신념의 힘이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대용약의 효과를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붙이는 적극적인 기대심을 의사가 환자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것이 대용약에 의한 치료가 현실로 치료적 효과를 빚어내게 되는 것이다. (칼 사이몬 외 박희준역(1990:72-73) 『마음의 의학과 암의 심리치료』, 서울: 정신세계사)

플라시보가 정말 강력하게 작용할 때가 있다. 구도를 일으키는 성분의 알약을 강력한 구도억제제라 믿고 복용한 환자의 대다수가 구역질을 적게 했다는 사실은 믿음이 한 방향으로 향할 때 약의 ‘실제’ 효력이 단순히 강해지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디팩 초프라(2005:143) 『마음의 기적』, 서울: 황금부엉이)

이처럼 플라시보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기대로 인한 효과가 있다. 노시보 효과다. 노시보 효과는 ‘나빠질 것이다’라는 부정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가 긍정적인 기대에 의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이 노시보 효과는 부정적인 기대에 의한 부정적인 결과를 낸다.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 폭포의 물을 마셨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포이즌이라고 쓰여 있는 팻말을 보게 되었다. 그는 독을 마셨다는 생각에 갑자기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한 아픔을 느낌과 동시에 배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했다.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그를 주변사람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그런데 담당의사는 환자의 자초지종을 듣더니 오히려 깔깔 웃는 게 아닌가? 의아해 하는 환자를 향해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 포이즌은 영어로는 ‘독’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남시금지’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환자는 아프던 배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멀쩡하게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차동엽(2007:70) 『무지개원리』, 서울, 위즈앤비즈)

단순한 소화제를 특효약이라 알고 먹었는데 그 약을 먹고 병이 낫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 약이 가짜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발병하거나 심지어 죽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가 우리 육신의 질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의학은 육체와 정신을 통합하고 심신이 서로 상관이 있다는 의

1) 위키백과: 위약(偽藥) 또는 플라시보(영어: placebo)는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환자가 의학이나 치료법으로 받아들이지만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약제를 말한다. 영어로는 플라시보(placebo)(라틴어로서, ‘마음에 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위약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현상으로 심리 현상 중 하나인 위약 효과(placebo effect)가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 약을 투여하면서 진짜 약이라고 하면 환자의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병이 낫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약이 부족할 때 많이 쓰였던 방법이다.

학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믿음은 치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도는 치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학에서도 영성치유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이 과학적 실험 데이터까지 제시해가며 등장하고 있다. (손기철 (2010:103) 『치유기도』, 서울: 규장)

생각은 뇌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이 화학작용은 뇌 전체의 다양한 장소, 이를테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서 일어나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며 이 호르몬들은 다시 신체의 먼 곳에 있는 기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불행한 생각과 관련해서 분노와 적대감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증가시키며, 얼굴을 상기시킨다.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손이 떨리고, 식은 땀이 흐르고, 속이 답답하며, 온몸에 힘이 빠진다.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행복한 생각들, 예컨대 애정 어린 생각, 평화롭고 고요한 생각, 자비, 우정, 친절, 관용, 따뜻함, 친밀감은 각각 중추 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과 호르몬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생리적 상태를 형성한다. 행복한 생각이 일으키는 심오한 생리적 변화는 건강으로 이어진다. 몸속으로 행복한 생각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분노와 냉담함, 증오, 갈등, 침울한 느낌 등이 육체의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면 행복한 생각은 그것과 정반대로 육체의 저항력을 증가시킨다. (디팩 초프라(2005:141-142) 『마음의 기적』, 서울: 황금부엉이)

마음의 믿음 작용이 육체의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 면역체계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마음의 작용에 따라 육체를 건강상태나 질병상태로 끌어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사랑

(1) 사랑은 영적 정신적 신체적 관계에 있어서의 치유매체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 우리 몸속의 간세포나 뇌세포, 콩팥세포들은 햇빛을 직접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세포에게도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은 햇빛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모든 호르몬계와 자율신경계 등의 지배하고 있는 유전자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인 사랑에 의하여 작동되면 인체가 건강상태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생명의 구조는 아주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것이 많다. 인간은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 숨을 쉬는 것도, 혈액이 순환하는 것도 우리들 자신이 노력하여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호르몬계, 자율신경계 등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 호르몬계와 자율신경계의 움직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유전자이다. 각각의 유전자는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며 작동되고 있다. 어떤 유전자가 작동되면 다른 유전자는 그것을 감지하여 작업을 중단시키든지 한층 더 작업의 정도를 높이거나 하면서 전체가 정교하게 조절되고 있다. (무라카미 카즈오, 김원신역(2000:40-41) 『유전자 혁명』, 서울: 사람과 책)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유전자가 살아있다는 뜻이며 실제적으로 이 유전자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 유전자는 사랑을 받아야 생명력 있게 활발해진다. (이상구(1998:45) 『유전자 건강혁명』, 서울: 서울문화사)

(2) 사랑의 촉각(觸覺)도 영적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있어서의 치유매체가 될 수 있다

촉각은 외부 피부에서 접촉하는 감각으로 어깨 두드리기, 포옹, 입 맞추기 등 다양한 접촉방법이 있다. 피부감각을 서로 나누는 것은 삶을 기쁘게 한다. 현대인이 고독한 것은 어쩌면 일차적인 이러한 피부접촉의 부족도 그 중의 한 원인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다. (요13:12) ‘피로와 병은 발에서 비롯된다.’ 말이

있다. 발을 만지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로가 풀리니 발마사지 하는 곳이 여기 저기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은 그것보다 인체의 가장 낮은 부위 더럽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낮은 곳을 섬기는 뜻으로 씻어 주신 것일 게다. 예수님의 손길이 제자들의 발피부에 닿았을 때 제자들은 사랑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느꼈을 것이다. 물론 그 동안도 사랑을 받았지만 이렇게 발 씻음을 통하여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또한 피부접촉으로 사랑하는 방법 중 손쉬우면서도 효과가 아주 좋은 방법이 포옹이다. 성경에는 엘리야가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다 지쳐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며 힘을 주고 위로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렘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너를 기억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렘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왕상 19:4-5)”

어루만지는 포옹은 몸과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행위이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촉각을 이용한 치유행위로 볼 수 있다.

포옹의 영어 ‘hug’는 ‘편안하게 하다, 위안을 주다’는 말에서 유래한다. 포옹이 마음의 병까지 치료한다는 ‘포옹요법’의 창시자 캐서린 키팅은 사랑을 깊이 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접촉 방법이 포옹이라고 한다.

포옹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포옹이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놀랄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1995년 미국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는 포옹의 경이로운 효과를 보여준다.

조산아로 태어난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자매는 1kg의 체중으로 태어났다. 건강을 찾은 언니 카이리와는 달리 브리엘은 새파랗게 질리도록 울어댔다. 이때 간호사는 언니를 동생 브리엘이 들어있는 인큐베이터에 함께 넣었다. 그 순간 카이리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몇 분 후 브리엘은 빠른 속도로 안정과 생기를 되찾았다. 이들 자매는 현재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 포옹의 마력이다.

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포옹을 자주하면 불안과 초조해 하는 증상이 개선되고 어눌한 말씨와 보행능력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옹이 단순히 껴안는 행위를 넘어 치유의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부모와 스킨십을 자주 한 아이들의 지능발달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빠르다고 한다. 정서적 안정감이 있어 감성도 풍부해진다는 아동전문가의 관찰이고 보면 포옹의 힘을 짐작케 한다.

신체적 접촉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외국의 몇몇 대형 병원들은 간호사나 호스피스 교육과정에 ‘안아주기 치료’ 프로그램 도입하고 있다.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의 따뜻한 포옹이 환자의 통증뿐만 아니라 불안감과 우울증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과 의지를 북돋워 주는 명약이라는 판단에서다.

포옹은 고통, 근심, 절망 가운데 있는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줄 수 있다. 기분전환에 좋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준다. 긴장을 풀어주며 불면증을 없애주며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

포옹은 일방적이 아니다. 안는 사람과 안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서로 안을 수도 있지만 양방 모두에게 변화를 일으킨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경우 아기나 엄마에게 모두 유익한 것이다.

스티븐 코비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따뜻한 것이 포옹이며 하루에 12번의 포옹을 권한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오프 가드비 교수는 포옹은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준다고 한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시행해 볼만하다. 특히 발 씻음은 사랑의 섬김을 피부로 체험하는 행위이므로 자존감 향상이나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심리적 안정이나 위로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회락

회락도 영적 정신적 신체적 관계에 있어서의 치유매체가 될 수 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바로 사람을 마르게 하느니라(잠17:22)” 고 말씀하는 것처럼 즐거

움은 건강을 가져다주고 근심, 걱정은 뼈 속까지 인간의 진액을 말리며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근심 걱정이 인간의 건강을 해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의 인명 피해를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내보내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빠져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시민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총탄이 사람을 꿰뚫어 죽인 수보다 불안과 공포가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았다. (차동엽(2007:92) 『무지개원리』, 서울, 위즈앤비즈)

인간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어 질병 상태로 빠졌다.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일 것이다.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시34:5)”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주안에서 항상 기뻐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4:4)”

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체와 정신에 유익하고 생리에 맞고 유익하기 때문일 것이다.

옛말에 일소일소(一笑一少) 일노일노(一怒一老)라는 말이 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 인디애나주 볼 메모리얼 병원은 외래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하루 15초씩 웃으면 수명이 이를 더 연장되었다고 한다.

또 ‘소문만복래(笑聞萬福來)’ 라는 말도 있다. 웃으면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는 의미이다. 그 복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그 복(福)중의 하나가 건강의 복(福)일 것이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웃고 지나면, 유쾌한 마음이 자율신경계를 통하여 호르몬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좋아지며,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면 부교감신경의 활동으로 몸이 알칼리성이 되어 지며, 따라서 정신활동의 균형이 노폐물을 배설하도록 해주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독일의 어떤 생리학자는 “웃음 속에는 비타민과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웃으면 자율신경의 작용이 잘 되므로 호르몬의 분비가 잘되고 비타민의 체내 흡수가 잘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길상(1994:151), 『건강하게 사는 지혜』, 서울: 기독교문사)

14세기의 지혜로운 의사는 “마을에 들어온 한 사람의 광대는 한 무리의 노새 등에 잔뜩 실은 약품보다도 주민들의 건강에 더 좋다.”고 하였다.

노만 커즌스는 웃음 연구의 선두 주자이다. 교원병²⁾에 걸렸다가 회복된 자기 경험을 반영하면서 “나는 10분간의 폭소가 고통없이 2시간 동안 편히 잘 수 있는 마취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여 기뻐다. 고통을 죽이는 웃음효과가 사라졌을 때에 우리는 영화 영사기를 다시 바꾸어 돌렸다. 그러자 또다시 고통없이 잠자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 웃음이 사건이 있기 여러 시간 전과 바로 후에 조사한 그의 육체화학 작용검사는 긍정적이며 점차 최고조에 달하는 향상을 보였다.

윌리엄 후라이(William Fly) 박사는 스펀포드 대학교 교수인데 웃음은 근육운동, 맥박수, 산소의 교환 등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계통과 심장혈관 계통도 촉진시켜 준다는 것을 밝혔다. 그것은 카테콜라민이라고

2) 현대 시사용어사전, 교원병(膠原病 Collagen Disease) 결합조직에 광범위하게 염증과 변성을 가져오는 병의 총칭.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어떤 면역현상이 관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스테로이드제가 치료에 쓰이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미해결된 난치병이다. 전신성 에리토마토데스, 만성 관절 류머티즘, 피부근염, 강피증(癩皮症), 다발성 동맥염 등이 대표적인 질병. 공통적으로 발열, 관절염, 발진 등 감염증을 생각 하는 증상을 나타낸다.

부르는 호르몬의 생산을 증가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 호르몬은 육체의 자연적인 고통 감소효소인 엔도르핀의 생산을 자극시켜 주었다. 베타 엔도르핀은 아마도 어떤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고하는 ‘주자들의 질정경험’과 계속 웃을 때 ‘웃음의 질정경험’등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클라인벨(2003:198) 『전인건강』,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웃을 일이 있어 웃거나 일이 잘 풀릴 때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내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나의 영혼육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없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고 말씀하시는 뜻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말고 내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살라는 명령이시다.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생명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랑과 웃음-커즌스의 표현으로 웃음은 ‘내면의 조깅’과 같다. 을 포함한 모든 긍정적 감정과 행위는 스트레스와 통증, 질병에 대한 몸의 자연적인 방어기능을 강화시킨다. 농담으로 인한 웃음이든, 상황이 불리오는 웃음이든, 혼자 실없이 웃는 웃음이든 모두 우리를 더욱 오래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삶을 향한 의지와 기쁨을 받아들이는 능력, 자신감 모두 건강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인정하면서 커즌스는 “지혜로운 의사는 전체적인 치료전략에서 환자의 책임있는 참여정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한다. (바바라 호버맨 레바인, 박윤정역(2003:45) 『병을 부르는 말 건강을 부르는 말』, 서울: 산티)

병을 치료함에 있어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에서-이러한 태도는 상호관계성이 건강하지 않다.- 의사와 환자와의 상호관계가 자율적인 참여에 바탕을 둔 상호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5. 기도

기도도 영적 정신적 신체적 관계에 있어서의 치유매체가 될 수 있다

치료 시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다음에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직 현대의학만 믿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성경에는 히스기아 왕과 아사 왕이 예이다. 이 두 왕이 똑같이 종기, 요즘 이야기하는 암 같은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아 왕은 벽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그 종기에 무화와 반죽을 농음으로써 치료되었다. 그리고 15년이나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다.

“그 때에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아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아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아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여호와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잇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오니라(왕하 20:1-7)”

그러나 또 한 사람인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현대 의학만을 믿고 의원들로부터 그의 병 치료를 하려고 했다. 히스기아 왕과 똑같은 발의 종기였지만 불과 2년을 더 살지 못하고 죽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삼십구 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는 지 사십일 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 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대하16:12-14)” (이길상(1994:300-301) 『건강하게 사는 지혜』,

서울: 기독교문사)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먼저 일반 은총인 세상의학을 우선하여 의지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기도는 질병을 이기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중보기도를 받은 환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병의 경과가 호전되는 것은 중보기도가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심장전문의 랜디 비어드 박사는, 병원에 입원 중인 관상동맥 환자 303명을 대상으로 기도 실험을 했다. 타인이 해주는 기도가 과연 실제 치유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그룹 환자들에게만 기도를 해준 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기도를 해주기 위해 참가한 이들은 환자를 따로 만나지 않았고, 단지 환자의 이름과 병명만 알고 각자 집에서 기도를 했다. 연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비어드 박사도 누가 기도를 받는 환자인지를 몰랐고, 환자들도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입원 초기 병세가 같았던 환자들 가운데 기도를 받은 그룹의 환자들이 합병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상동맥 질환이라면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등 관련 병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여러 이상이 확산되기 마련이다. 그런 이들이 합병증이 적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인 셈이다. 3)

중보기도를 하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양자역학이다. 아무리 미세하다고 해도 기도를 하면 에너지의 이동이 생기고 그 에너지가 목적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영돈(2006:120) 『마음』, 서울: 위즈덤 하우스)

이상에서와 같이 영적 정신적 신체적 관계에 있어 여러 치유매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먹고 말함과 정신적 관계에 있어 치유매체로서 절제를, 영적,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있어서의 치유매체로서 회락, 사랑과 사랑의 축가, 믿음, 말씀, 기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음식물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기능은 또한 육체적 영적으로 영향을 상호간에 주고받음을 알 수 있다.

III.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치유매체들의 연합

이상에서와 같이 치유매체들의 치유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각각의 치유매체들은 독립된 별개의 치유매체로서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각각의 치유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치유매체들은 삶속에서 통합적으로 적용한다면 각각의 치유적 매체로- 절제, 사랑, 믿음, 회락, 말씀, 기도- 얻을 수 있는 단편적인 효과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치유매체들의 연합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각 기능의 연합이 중요하다. 영혼 구원 역시 어느 한 기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기능이 서로 협력하여 구원을 이룬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기능과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능과 입으로 고백하는 말하는 기능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듣는 기능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에 기록된 대로 믿음을 가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중한 감각기능이다. 또한 입을 통해서 말하는 기능은 사람이

3) 다음블로그 푸른 하늘 내 생각하는 대로 불러들인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중에서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T10f&articleno=8409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로 구원에 이르는 통로이다.

결국 영혼이 치유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듣고 들은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다.

나가며

종교(religion)는 관계(relation)성을 가진다. 그 관계성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호관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와 부합될 때는 건강상태이고 부합되지 않을 때는 질병 상태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육간의 상호관계, 나와 너의 영혼육간의 상호관계와 나와 너의 영혼육과 하나님과의 상호관계에서 관계하는 매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와 부합여부는 건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치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와 관계하는 대상과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에 부합하는 절제, 믿음, 사랑, 희락, 말씀, 기도 등이 어떻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 치유요소들은 모두가 다 순수한 인간 스스로가 적용 및 활용 가능한 내재적 요소들이다. 현대 의학의 치료적 방법들은 대부분 외부적 요소인 의약품, 의료기 등에 의존하여 의존적으로 치료하는 실정이나 이러한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에 부합하는 치유매체를 통하여 질병을 치료한다면 자발적인 치유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의 절감은 물론 육체적 질병치유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영적인 치유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치유매체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방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요소가 상호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총체적 존재이다. 이 글이 치유적 방법에 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대증치유방식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통합적인 접근과 아울러 의사에 의존하는 타율적인 아닌 자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치유의 통로도 다양하며 치유매체도 다양하므로 통합적으로 각 개인의 형편에 맞는 치유적 접근을 모색할 때 좀 더 전인적이고 효과적인 유익한 치유가 될 것이다. 끝.

참고문헌

<단행본>

- 이명수(1993). 박행렬 옮김 『치유선교론』. 서울: 나.임
박정훈(2002). 『잘 먹고 잘사는 법』. 서울: 김영사
이상룡(1997). 『성경과 한방이야기』. 서울: 국민일보
장두석(1995). 『사람을 살리는 단식』. 서울: 정신세계사
황성주(1992). 『성서건강학』. 서울: 국민일보사
이길상(1994). 『건강하게 사는 지혜』. 서울: 기독교문사
차동엽(2007). 『무지개원리』. 서울: 위즈앤비즈
손기철(2010). 『치유기도』. 서울: 규장
김상운(2011). 『왓칭』. 서울: 정신세계사
이상구(1998). 『유전자 건강혁명』. 서울: 서울문화사
이영돈(2006). 『마음』. 서울: 위즈덤 하우스

<번역서>

- 미국상원영양문제 특별위원회, 원태진 편역(1990).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서울: 형성사
甲田光雄, 김홍국 역(1993). 『소식예찬』. 서울: 늘푸른들
이시하라 유미, 황미숙 역(2009). 『하루 세끼가 내 몸을 망친다』. 경기: 살림
오찌 히로토모, 삶과 꿈 역(1992). 『미식소식이 오래 산다』. 서울: 삶과 꿈

에모토 마사루, 양역관 역(2006). 『물은 답을 알고 있다』.경기: 나무심는 사람
칼 사이몬톤 외 박희준 역(1990). 『마음의 의학과 암의 심리치료』.서울: 정신세계사
디팩 초프라 도솔 역(2005). 『마음의 기적』.서울: 황금부엉이
무라카미 카즈오, 김원신 역(2000) 『유전자 혁명』.서울: 사람과 책
클라인벨, 이종현,오성춘 역(2003). 『전인건강』.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바바라 호버맨 레바인, 박윤정(2003). 『역병을 부르는 말 건강을 부르는 말』.서울: 산티

<간행물>

김형태(2014). 『치유와 선교』 제8호 대전: 엘도론
손영규(2014), “총체적 치유선교론”

<그 외 인터넷 자료>

다음블로그 『푸른 하늘』 내 생각하는 대로 불러들인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중에서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T10f&artid=8409 (검색일 2017.9.28.)